철강업계, 신소재 분야 무게이동 해상풍력·원전용 강재 등 수요 선점

동국제강 GFRP 보강근 생산·판매
포스코 전기차·에너지 소재 확대
현대제철 저탄소 고부가 제품 주력

국내 철강업계가 건설·조선 중심의 범용재에서 신소재와 전기차·에너지향 소재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철근 대체재를 직접 생산하는 한편, 전기강판과 해상풍력·원전용 강재까지 제품군을 넓히며 새 수요 선점에 나서는 흐름이다.

19일 동국제강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 보강근을 생산·판매 중이다. 철근 중심 사업에서 신소재로 제품군을 넓히는 전략으로, 향후 철강 구조재와 연계한 시너지 영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GFRP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철근 대체 보강재로, 염해 환경에서 구조물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어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교량과 철도 궤도 등에 적용되며 사용성이 검증됐고, 최근 관련 국가 기준도 마련됐다. 인도 푸네 소재 인피니티 마켓 리서치는 글로벌 GFRP 시장이 지난해 615억5000만달러에서 오는 2031년 956억5000만달러로 성장(CAGR 7.6%)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국제강은 포항공장에 GFRP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지난해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내진용·극저온용·코일 철근 등 신규 제품 개발도 병행하며 철근 사업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범용 철강에서 전기차·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제품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생산 확대가 대표적이다. 광양제철소 Hyper NO 공장 증설을 통해 전기강판 생산능력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은 지난해 63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전기강판 수출도 72만2400톤으로 19.1% 늘었다.

자동차강판과 저탄소 생산 기반 확충도 함께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중국 하북강철과의 합작을 통해 연간 90만톤 규모 자동차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했고,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개소와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 착공으로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납품 실적과 인증을 바탕으로 에너지·저탄소향 고부가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21년 현대중공업에 9% 니켈(Ni) 후판을 공급했고, 2023년에는 H형강 저탄소 제품 인증과 울산공장 DNV 해상풍력 공장 인증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세아제강과 해상풍력용 탄소저감 후판 공동 평가에 성공하고, 현대차와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에 대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원자력 소재 공급사 품질시스템 인증(ASME QSC)까지 확보하며 해상풍력·탄소저감·원자력 분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조선·자동차 중심이던 철강 수요가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면서 해상풍력, 방산, 데이터센터 등으로 적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업계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19일 서울 광진구 복합 문화공간 파이 팩토리(PIE Factory)에서 열린 '2026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되는 포르쉐 준대형 전기 SUV '카이엔 일렉트릭'을 배경으로 포르쉐 AG 해외 신흥 시장 총괄 크리스티아네 초른(왼쪽)과 포르쉐코리아 마티아스 부세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올해 10종 이상 신차 출시"

간담회서 '가치 중심 성장' 전략 소개

포르쉐코리아가 올해 1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고 전동화 리더십 강화와 스포츠카 중심의 전략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가치 중심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질적·양적 성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르쉐코리아는 19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2026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티아스 부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과 함께 크리스티아네 초른 포르쉐 AG 해외 신흥 시장 총괄 부사장이 방한했다.

초른 총괄 부사장은 한국 전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맞춤형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그는 "향후 국내 도입 모델에 모두 국산 업체의 배터리 셀을 탑재할 것"이라며 "한국의 배터리 기술 선도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에 1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신형 911과 마칸 GTS를, 하반기에는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와 카이엔 일렉트릭 등을 선보이며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한다. 특히 카이엔 일렉트릭은 전동화 SUV 전략의 핵심 모델로, 터보와 기본형, 카이엔 S 일렉트릭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 레이싱 헤리티지와 개인화 철학을 결합한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 제품은 한국 고객만을 위해 100대 한정으로 특별 제작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AI 냉장고가 식재료 관리해드려요"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출시
제미나이 연계 냉장고 내부 관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된 식재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도화된 AI 기능이 적용돼 식자재 관리가 더 편리해졌으며, 음성 인식 제어 기능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으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했다.

이번 신제품은 생성형 AI '구글 제미나이'와 결합돼 식품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된 'AI 비전'이 탑재됐다. 'AI 비전'은 냉장고 내부 카메라를 통해 식재료를 인식하는 기능으로, 기존에는 신선식품 37종과 가공·포장 식품 50종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인식 가능한 식품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식품 종류의 개수 제한없이 다양한 신선·가공 식품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포장 식품이나 사용자가 식품을 담은 용기에 직접 적은 라벨의 내용까지 인식해 자동으로 푸드리스트에 등록한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삼성전자

신제품은 인식된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까지 차원이 다른 식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AI 푸드매니저'도 지원한다.

상황과 사용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도 적용됐다. '하이브리드 쿨링'은 평소에는 컴프레서를 단독으로 운전해 냉각하고,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강력한 냉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함께 작동시켜 최적의 냉각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신제품은 32형 대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프리스탠딩 모델과 9형 터치스크린에 키친핏 맥스 디자인을 갖춘 키친핏 타입의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프리스탠딩 타입이 584만원, 키친핏 타입이 464만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확보

몰튼과 메탄가스 활용 원료개발 MOU

포스코퓨처엠이 메탄가스를 활용한 비채굴 방식으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확보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몰튼(Molten)사와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산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흑연 원료 확보 방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자사의 음극재 기술과 몰튼의 메탄가스 기반 흑연 생산 기술을 결합해 음극재 원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몰튼이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생산하면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자회사 퓨처그라프를 통해 구형흑연으로 가공하고 세종 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로 생산할 계획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기존에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흑연에 의존해왔으나 양사가 보유한 원료·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핵심 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원료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휘센 뷰 시리즈' 라인업 확대

실속형 모델 '뷰I' 출시

LG전자가 쉬운 관리와 편리한 인공지능(AI) 바람,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뷰케이스 등 차별적인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LG 휘센 뷰' 에어컨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AI 에어컨 시장을 선도한다.

LG전자는 2026년형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 뷰I (이하 뷰I)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더 많은 고객이 인기 모델인 휘센 뷰 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품 선택지를 넓힌 실속형 모델이다. 뷰 시리즈는 지난 2024년 첫 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2026년 뷰I 신제품에는 클린뷰 등 그동안 최상위 라인업에 탑재됐던 기능들이 대거 적용됐다. '레이더센서'는 고객의 위치와 사용 패턴, 공간을 분석해 AI바람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한다. '쾌적제습' 기능은 온도를 과하게 낮추지 않고 습도 조절만으로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LG전자는 올해 휘센 뷰 시리즈의 총 모델 수를 기존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출시됐던 휘센 쿨 시리즈 역시 기류조절이 용이한 휘센 쿨프로로 라인업을 확장해, AI 에어컨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오넥스그룹, 전략적 협력 협약

그리스 조선·방산사업 수주 '청신호'

한화오션은 그리스 최대 조선·방산업체인 오넥스(ONEX)그룹과 '그리스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사장과 파나기오티스 제노코스타스 오넥스 대표,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오션과 오넥스그룹은 그리스 해경과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 등에 상호 독점적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지중해와 흑해는 물론 그리스 인접 국가를 포함한 제3국 시장에서도 사업별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현지 대형 조선소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로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향후 발주될 그리스 해경·해군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